

추 도 사

금성당(錦城堂) 도견(道堅) 대종사(大宗師)님!

일생동안 ‘한 물건(一物)’이라는 화두를 놓지 않으시면서, 대중들에게는 금강경을 보시하며 선객의 교과서를 손에서 놓지 말라고 당부하시더니 이렇듯 세연을 놓으시는 것은 그 한 물건을 찾으신 것입니까. 항상 계를 철저히 지켜야 수행자라고 할 수 있고, 불법은 계율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으니 함부로 계를 범해선 안된다고 추상같은 경책을 내리시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불민한 후학들에게는 아직도 큰스님의 가르침이 간절한데 이렇듯 적멸의 경지로 들어가시니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불심이 남달랐던 모친을 따라 어린 나이에 불문에 들고, 틈만 나면 출가를 결행하고자 했던 발심은 스님의 불연이 너무도 지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차례 그 뜻을 이루기 어려웠건만 마침내 지월스님을 만나 출가의 뜻을 이루신 것은, 또 한편 그 누구도 수행자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육보살의 표상이자 대선지식이셨던 지월스님께 ‘잘못은 잘할 수 있는 근본’이라는 따스함을 익히고, 손수 허드렛일에 나서고 게으른 수좌를 보면 눈물을 흘렸던 스승을 통해, 마음에 새긴 하심과 근검절약을 수행의 지표로 삼은 모습은 후학에게는 또 다시 새로운 지표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학에 매진하면서도 도를 이룰 때까지는 나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동산스님과 구산스님과 같은 당대의 선지식을 모시고 수차례 결사에 참여한 결연한 서원은 아직도 도처에 선하여 수행자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수행에 매진하셨지만 때로는 종단의 대소사에 원력을 더하기도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무슨 주지냐’고 해인사 주지를 마다했지만

‘부처님 밥 값 좀 하라’는 성철스님의 당부를 뿌리치지 못하고 소임을 맡기도 했으며, 또한 중앙종회 의장, 원로의원을 두루 역임하며 이사(理事)에 무애한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금성당 도견 큰스님!

한암스님의 회상에서 금강경을 배운 이래, 평생을 시간의 토막도 없고 큰 것도 작은 것에 포함되고 작은 것도 큰 것에 포함되는 자유자재의 그 ‘한 물건’을 찾겠다던 그것은 바로 일생의 화두이자 벗일 것입니다. 또한 계율은 수행의 결정체라고 하시며 언제나 계율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 하셨으니, 선에 들되 교와 율을 버리지 않는 수행의 경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70년의 성상동안 실로 치열한 수행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선 . 교 . 율에 두루 하여 막힘이 없고, 이와 사에 걸림이 없는 무애의 경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근검절약의 생활 속에 소박한 수행자의 면모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자리를 찾는 공부가 좋아 시간을 접어두고 평생을 수좌로 대중생활을 계속하신 것이나, 특히 이곳 해인사를 언제나 편안한 수행처로 여기고, 은사스님께서 열반에 드신 곳이기에 떠나지 않고 수행을 계속하신 각별함은 숙연함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적멸의 경지를 보여주심도 후학들이 바른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당부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고대하는 중생이 가득하오니 청정한 진여의 세계, 자비 구름으로 피어나셔서 온 대지를 적시는 법의 비를 두루 내리사 만 중생의 번뇌를 씻어 주소서.

불기2557(2013)년 7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